

작년 소비자 피해신고 36% 여름 휴가철 집중

여행상품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 광주 133건·전남 90건...휴가객 주의 요망

#'동유럽 6개국 12일' 여행패키지 상품을 249만원에 예약, 계약금으로 25만원을 건 김씨는 여행 출발 전 갑작스럽게 아파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씨는 질병 진단으로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에서는 직접 입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안이

라며 지급을 미뤘다. #가족 여행을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2박3일 예약한 이모씨는 막상 펜션에 도착해 환담했다. 시설과 위생이 엉망이었고 물놀이와 바비큐도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는 달리 사용하지 못했다. 주인에게 광고와 다르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인은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 소비자 피해 신고의 36%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권영익)는 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호남·제주지역에서 접수된 피해건수 총 1074건 중 391건이 여름철(6~8월 기준)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 212건, '렌선·콘도' 134건, '렌터카' 45건 등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14건, 전남 90건, 제주 54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렌터카는 사고 발생 때 수리비 과다 보상 청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종별 피해사

례와 예방요령을 알리는 한편, 접수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중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소비자단체들과 업무협력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정수금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국산 밀 수입 잠정 중단

제분업체... 식약처 GMO 밀 유입 가능성 조사

국내 제분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전자변형(GMO) 종자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산 백밀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제분협회(회장 이희상)는 31일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GMO밀'이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역국 발표와 관련,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가 된 미국산 백밀의 구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제분업계는 매년 미국 정부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밀이 국 상용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밀을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도 광장소 소량으로 재배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밀은 오리건에서 생산되는 '소프트 화이트' 품종의 '블랙'이라며 "오리건산 소프트화이트는 90% 이상이 겨울밀이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양일 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오리건주의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7개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내달 첫째주 나올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오리건주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소규모 업체 2곳에도 검사직원을 파견했다. 해당 업체들은 그러나 문제의 GMO밀이 실제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라며 "다만 미국에

계 중흥골드스파 워터락 이용권 2매,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는 모바일 기프트콘이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전용 적금상품인 'KJB스마트특별적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상품으로, 1인 1계좌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타 상품과는 달리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 가입만 하면 연 3.5%(2013년 6월3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는게 장점이 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NC 백화점 문 열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백화점 업계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1일 옛 현대백화점 광주점에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NC백화점 광주점 제공)

光銀 e-금융상품 가입하면 행운 '팡팡'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온라인 금융쇼핑몰인 'e-우주금융센터' 오픈 3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알랑가돌라'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6월 3일부터 6월말까지 광주은행 e-우주금융센터를 통해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33명에게 행운이 주어진다. 광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퀴즈를 풀고 상품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30명에게

중흥골드스파 워터락 이용권 2매,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는 모바일 기프트콘이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전용 적금상품인 'KJB스마트특별적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상품으로, 1인 1계좌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타 상품과는 달리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 가입만 하면 연 3.5%(2013년 6월3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는게 장점이 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8월 대기업 15% 절전 의무화

정부 규제 강화...공공기관은 20% 감축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생긴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기업체 등 2836곳에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기간은 8월 5일~30일까지 19일간이며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를 대상으로 한다. 감축량을 비교하는 사용량 기준은 추후 정한다. 공공기관은 7~8월 월 전력사용량을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 줄여야 하고 계약 전력이 100kW 이상이면 전력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20% 감축

해야 한다. 작년 말 올해 초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면서 의무감축을 했지만, 여름철 의무 감축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블랙아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고 최소한 400만kW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었다"며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동참하면서 불편과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물리고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가입 대상을 계약전력 3000kW미만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

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가입대상도 100kW 이상 14만 호로 늘린다. 일반 가정이 7~8월에 작년과 비교해 전력 사용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절전 인센티브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산업체 조업을 줄이거나 휴가를 분산하도록 하는 수요관리로 수요를 100만 kW를 줄일 계획이다. 7~8월에는 오후 2~5시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입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냉방온도는 공공기관 28도 이상, 민간 대형 건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 485개는 냉방기를 30분 간격으로 운전·정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유통업체 "블랙아웃 막아라"

조명켜기 1시간 늦추고 엘리베이터 운행 단축 등

위조 부품을 사용한 원전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 유통업체들도 에너지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2일 여름철 블랙아웃(전기사용량이 전력공급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대정전 사태)에 대비해 시설물 조명, 전기 전열, 냉난방, 환경, 위생 설비 등 장비 운영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장 조명과 전열 사용을 개점 전 기준 8시30분에서 9시 30분으로 1시간 늦추고, 매장 총 가동 조명의 70%만을 축소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물도 운영시간을 20분 가량 단축하고, 외부 옥외광고는 폐점 즉시 소등하기로 했다. 건물 외등은 폐점기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여름철 블랙아웃에 대비해 전기시설물을 점검하며 실내 온도를 체크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준 30분후로 차단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여름 더위가 본격화할 때 폐점 2시간 후부터 모든 출입문을 열어 점포의 실내 온도를 낮출 방침이다. 낮 간접조명도 절전을 위해 필요한 곳만 켜고, 에스컬레이터 주변과 리뉴얼하는 매장에는 할로겐 대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

다. 김영섭 광주신세계 기술운영팀장은 "올해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약 10% 가량 절약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에너지 사용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전력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이름을 건다는 건
진심을 다한다는 것

우리가 가슴에 이름을 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영광원전은 한빛원전
울진원전은 한울원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소중한 이름을 걸고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귀 기울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습니다